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론 (가) 윤리학은 모든 도덕 행위자들에게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규범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개념 (나) 윤리학은 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도덕규범이 개인의 도덕 판단과 사회 제도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명제에 대한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을 강조해야 한다.
- ② (가):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규범적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③ (나): 도덕 관습에 대한 서술보다 도덕 문제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
- ④ (나): 도덕 현상을 관찰할 때 해당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비~~해야 한다.
- ⑤ (가, 나): 도덕규범의 제시보다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

이타
Tip: 윤리학의 목적 part에서 ⑤번은 가의 답 X
=> (가)·(나)로 같이 묶일 윤리학 X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관점 갑: 어떤 행동이 아무런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로부터 비롯될 때, 그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결과가 아닌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비판 을: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쾌락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크다면 이는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 모든 쾌락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일곱 가지 기준으로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다.

- ① 갑: 의무와 일치하는 모든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② 갑: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의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적 명령이다.
- ③ 을: 행위가 가져올 양적 쾌락보다 질적 쾌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을: 사회적 유용성의 산출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닌 동기이다.

③: 모든 쾌락의 질적 측면 동일

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역 => 삶의 비판**

예술의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여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인류가 예술 작품을 통해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교류하며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상가는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며,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예술은 인류애의 증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예술은 사랑의 감정을 교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③ 예술가는 예술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예술은 도덕적 가치보다 심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예술가의 사명은 인간의 이타적 품성 함양과 무관해야 함을 간과한다

4.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 퇴치에 의학적으로 유용하므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자신의 유전 질환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의학적으로 불완전하여 후세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영향을 받는 후세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그들의 유전자를 개량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보기 〉

- ㉠ 갑: 자녀의 유전병을 예방하려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 갑: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경제적 효용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 ㉢ 을: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 ㉣ 갑, 을: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로 인해 발생할 의학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2020 4능(공자목자)선사와 유사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5.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3점]

갑: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질은 인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하면 정보 생산자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양질의 정보 생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보 사용에 제약이 생겨 양질의 정보 생산을 방해할 것입니다. 정보는 인류의 집단적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공동의 자산이므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을: 아닙니다.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보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창작 의욕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정보 생산을 방해하여 인류의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 ① 양질의 정보는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가?
- ② 정보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인가?
- ③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가?
- ④ 경제적 보상이 없어도 정보 생산자의 창작 의욕은 증진되는가?
- ⑤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보장은 양질의 정보 생산에 기여하는가?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동물을 상업적인 목적이나 실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는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p> <p>을: 벼락에 쓰러진 참나무는 떨감으로 사용되지만,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죽고 다른 종들은 그것을 소비하며 혜택을 본다. 이처럼 대지 공동체는 무한히 상호 의존적이다.</p> <p>병: 인간이 설계한 기계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인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유기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p> |
| (나) |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 A: 갑과 을만의 공동 입장 B: 갑과 병만의 공동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동 입장 D: 갑, 을, 병의 공동 입장</p> |

- <보기>
- A: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 000
 B: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0X0
 C: 모든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X00
 D: 비이성적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000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7. **타인의 보살피려는 것이 어떤 정당화 가능.**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수호자가 세상의 금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들과 더불어 나머지 사회 구성원 모두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군인 계층 중 자격이 없는 자가 통치자 계층으로 이행하려 든다면 나라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p> <p>을: 목민관이 탐욕을 부리면 백성을 착취하게 되지만 절약하면 능히 베풀 수 있다.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니, 녹봉을 절약하거나 자기 농토에서 거둔 수확물로 어려운 백성을 돕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p> |
|-----|---|

- <보기>
- ㉠ 갑: 다스리는 자의 임무는 다른 계층의 구성원이 대행할 수 없다.
 ㉡ 을: 다스리는 자의 청렴한 자세는 애민(愛民)의 기반이 된다.
 ㉢ 을: 다스리는 자는 사유 재산을 나누며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 갑, 을: 다스리는 자는 절제의 덕을 갖추고 직분을 다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장식적인 선지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칸트

최선의 국가 체제는 인간이 아니라 이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화적 체제**이다. 국가들은 사회 계약의 이념에 따라 하나의 국제 연맹을 결성함으로써 국제법을 통해 영원한 평화에 들어설 수 있다. 또한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 ① 모든 사람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②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인가?
 ③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정치와 도덕은 합치되어야 하는가?
 ④ 개별 국가들의 정치 체제는 세계 평화 실현에 영향을 주는가?
 ⑤ 국제법에 따라 국가들은 하나의 세계 공화국을 수립해야 하는가?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을: 자연적 능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삶은 뛰어난 능력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되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잃게 되는 **총액 불변의 게임**이 아니다.

- ① 갑: 천부적 재능에 비례하여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② 갑: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이익은 공정한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을: 자연적 능력을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④ 을: 자연적 능력으로 얻은 이익을 정형적 원리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⑤ 갑, 을: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임의적이라는 사실은 정의롭지 않다.

just 지적 사실 가능성 선지

10.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불교

세 개의 갈대가 땅 위에 서려면 서로 의지해야 한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이처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 A는 얼굴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모아 놓은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과 이재민은 상호 독립적 존재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② 재난은 이재민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세요.
 ③ **자타불이**(自他不二)를 깨달아 이재민들에게 선행을 베푸세요.
 ④ 고령된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자비심(慈悲心)을 발휘하세요.
 ⑤ 기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세요.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살인자에게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p> <p>을: 법을 집행할 때 살인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국가의 배신자이며, 국가의 보존은 살인자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다.</p> <p>병: 중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범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의 규제는 필요 이상의 잔혹하고 일시적인 고통보다는, 효과가 확실하고 지속적인 고통이 반복될 때 가능하다.</p> |
| (나) | <p>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p> <p>Legend: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

- < 보기 >
- ㉠ A: 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XX
 - ㉡ B: 범죄자에 대한 형벌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하는가? ○○
 - ㉢ C: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형벌인가? ○○
 - ㉣ D: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는 것인가? ○○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만 **회로** 풀라는...
 살짝 **회수한** 문항...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은 자연에서 세속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드러난 **성스러움[聖顯]**을 체험하며, 이를 숭배한다. 거룩한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돌이나 나무여서가 아니라, 성스러움이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된다. 한편 비종교적 인간은 탈신성화된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며 이러한 성스러움을 거부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종교적 행동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 ① 비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에 드러난 성스러움을 인정한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 크지않게 성스러움으로 간주한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삶 속에서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공존을 경험한다.
- ④ 종교적 인간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만 초월적 존재를 만난다.
- ⑤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이 종교적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

②: 기를 **빈** 선지

1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히 프롬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받는' 문제로 여겨 돈을 모으고 외모를 가꾸며 사랑스러워지기 위해 노력하거나,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여겨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대상을 찾으려고만 애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며, 받기 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내면의 모든 능력을 그에게 주는 활동입니다.**

- ① 사랑의 실패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
- ② 외적인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랑을 지속하게 된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에 참여하는 능동적 활동이다.
- ④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한 사람은 노력 없이도 사랑을 유지한다.
- ⑤ 사랑을 받으리란 기대가 있을 때만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공정한 주목을 받으며 참여하는 것으로 공공 연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된다.

- < 보기 >
- ㉠ 시민 불복종은 크지않게 사회를 위협하는 위법 행위이다.
 - ㉡ 시민 불복종은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정치 행위이다.
 - ㉢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 권익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청원이다.
 - ㉣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정당한 자유의 원칙** 위반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문상(問喪)하러 가서 대성통곡하는 것은 자연[天]의 도(道)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물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이다. 지인(至人)은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받아들이며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을: 선비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 그에게는 **인(仁)**을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도덕적 신념은 굳건하고 의지가 강인해야 한다. 죽음으로써 선한 도를 사수해야 하니, 이는 죽고 나서야 그만둘 뿐이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 ② 갑: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
- ③ 을: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 ④ 을: 죽은 자에 대한 애도(哀悼)는 선비가 행해야 할 도리이다.
- ⑤ 갑: **인**의 실현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은 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